

## 미래 사라질 위험 낮은 직업 '간호사'

### 스마트기술로 대체 가능성 분석결과 대체 위험과 가능성 낮은 직업군에 해당

간호사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같은 스마트기술에 의해 대체될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분류됐다.

이는 한국고용정보원(원장·유길상)이 발간한 연구사업보고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에서 밝혀졌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과 같은 스마트기술이 미래 인간의 직업 능력을 어느 정도 대체하고, 이를 통해 기술적으로 얼마나 일자리 대체가 가능한가를 탐색한 연구다. 박기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외 3명이 집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조산사 포함)는 '저위험-저변화' 그룹으로 분류됐다. 향후 기술에 의해 능력이 대체되는 비율이 낮고(저위험) 변화율도 낮은(저변화) 그룹에 속한 것이다. 이 그룹은 듣고 이해하기, 읽고 이해하기, 말하기 등 의사소통과 관련된 능력에서 높은 값을 보여줬다.

이번 연구에서는 각 직업별로 업무능력대체비율(WARS)을 산출해 2025년 대체비율을 기준으로 고위험 및 저위험 집단을 분류했다. 또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업무능력대체비율의 변화율을 이용해 고변화 및 저변화

집단으로 나눴다. 총 404개 직업을 '저위험-저변화' '저위험-고변화' '고위험-저변화' '고위험-고변화' 등 4개 집단으로 분류했다.

이때 WARS는 각 직업별 업무 수행능력을 현재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해, 전문가들이 현재 시점-2020년-2025년에 각각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에 대해 응답한 자료를 비교해 산출했다.

△저위험-저변화 직업(75개) = 기술에 의해 능력이 대체되는 비율인 WARS가 낮고, 변화 정도도 낮은 직업군이다.

간호사(조산사 포함)를 비롯해 보육교사, 약사 및 한약사,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문리 및 어학 강사, 아나운서 및 리포터, 배우 및 모델, 초등학교 교사, 의무기록사, 웹프로그래머, 작가 및 관련 전문가, 정부 및 공공행정 전문가, 고객상담원(콜센터상담원), 광고 및 홍보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이다.

△저위험-고변화 직업(173개) = 기술에 의한 대체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2025년까지는 아직 위험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직업군이다.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보험 심사원 및 보험사무원, 영양사, 임상심리사 및 기타 치료사, 사 진작가 및 사진사, 물리 및 작업 치료사, 일반의사, 통역사, 번역가, 중고등학교 교사, 방사선사, 출판물 기획전문가, 임상병리사, 기자 및 논설위원, 응급구조사, 치과외과, 인사 및 노사 관련 전문가, 한의사, 수의사, 전문의사, 장학관련기관 및 교재개발원, 연구관리자, 관사 및 검사,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이다.

△고위험-저변화 직업(119개) = 변화 정도는 낮지만 WARS가 높아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직업군이며, 이미 상당 부분 대체가 이뤄졌다.

청원경찰, 주유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패스트푸드원, 가사도우미, 간병인, 경비원, 택배원,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애완동물미용사, 안경사, 기타 사회복지 관련 종사원, 우편물 집배원, 유치원 교사 등이다.

△고위험-고변화 직업(37개) = WARS가 높고, 변화 정도도 높은 직업군이다. 향후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은 높을지라도 아직은 기술의 발달에 의한 대체가 덜 진행된 직업이다. 소방관, 온라인쇼핑몰 판매원, 이용사,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기 판매원, 장례상담원 및 장례지도사,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이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 간호교육기관 7곳 인증 획득

### 2016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결과 발표

### 2주기 인증평가 완료 올해부터 3주기 인증평가

2016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실시한 결과 7곳의 간호교육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간호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강원대(도계) △서남대 △케이씨대 △한중대 △세경대 △송곡대 △한영대.

이 명단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kabone.or.kr)에 게재됐다.

이로써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정부인정기관으로 실시하는 2주기(2012~2016년) 간호교육인증평가 완료됐다.

2016년 기준 인증평가 대상인 전국 204개 간호교육기관 모두가 2주기 평가·인증 획득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 상반기

2곳, 2012년도 하반기 9곳, 2013년도 상반기 12곳, 2013년도 하반기 10곳, 2014년도 상반기 24곳, 2014년도 하반기 47곳, 2015년도 상반기 33곳, 2015년도 하반기 42곳, 2016년도 상반기 18곳, 2016년도 하반기 7곳이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정부인정기관으로서 2주기에 이어 3주기(2017~2021년)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3주기 첫 인증평가인 2017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진행 중에 있다. 평가를 신청한 대학의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이 3월 29일 완료됐다. 서면평가와 현지 방문평가를 거쳐 평가결과는 6월 경 공표될 예정이다.

2017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신청서는 오는 7월경 접수받을 예정이다.

평가인증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부터 할 수 있으며,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김숙현 기자 skim@

꼭 감소했다.

특히 병상포화지수가 100%를 넘어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은 2015년 대비 5곳 줄어든 7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응급환자 재실시간 지표가 수기에 연동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병원들이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응급환자 책임진료 평가지표도 소폭 개선됐다. 먼저 '중증환자 최종진료 제공률'은 80.1%로 전년대비 4.5%p 상승했다.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비치료 재진원율'도 3.8%로 2015년 4.4%보다 감소했다. 이는 2016년부터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강화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행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응급의료기관 9곳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전체적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법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보조금을 삭감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기관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광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실 감염예방 및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 운영 관리를 강화하며,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Nurselife**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  
www.Nurselife.or.kr  
1566-3137

### 2017년 연중 지급 혜택

- 2017년 하반기부터 20,000 회원복지포인트 지급
- 등록회원 RNshop 총 구매액의 1% 적립포인트 지급

### 3월 지급 혜택

- [3.13~3.19] 영화 '보통사람' 주연배우 무대인사 및 무료관람 : 100명, 900,000원 상당 제공
- [3.15~3.26] 뮤지컬 '보디가드' 부산공연 초대 : 20명, 1,200,000원 상당 제공

### 4월 지급 예정 혜택

- [4.20]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무료관람 RNCard 이벤트 : 서울·광주·대전·울산지역, 557명, 5,570,000원 상당 제공

## 2017년 순회보수교육 간호와 의사소통-소통의 감을 잡다

대한간호협회는 2017년 순회보수교육 '간호와 의사소통-소통의 감을 잡다(8시간 인증)'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명	간호와 의사소통-소통의 감을 잡다
일시	2017년 5월 16일(화)
신청기간	2017년 3월 27일~5월 10일
장소	대한간호협회 대강당(쌍림빌딩 13층)
교육인원	100명(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KNA에듀센터(edu.kna.or.kr) 개인회원 로그인 → 오프라인 RN교육 '간호와 의사소통-소통의 감을 잡다' 검색 → 신청 및 결제

## 지역선도 의료기술 13개 사업 선정

보건복지부는 '2017년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평가'를 통해 13개 시도의 13개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은 지역의 잠재력 있는 대표 의료기술을 발굴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결합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유치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돼 왔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 기본 인프라 구축, 마케팅·홍보 분야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사업 신청건수는 22개로 지난해 11개에 비해 두 배 증가했다. 최종 선정 사업도 지난해 8개에서 13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사업은 △평창올림픽을 활용한 스포츠의학(강원) △불임치료(서울 강서구) △호흡기 질환치료(충북) △안 등 중증 복합치료(충남) △외과수술(경남) △양·한방 통합의료치료(전북) △척추관절(부산) △안구 돌출교정기술(대구) △임플란트(광주) △최소침습수술(경기) △척추치료(경북) △종합검진(대전) △헬니스(제주) 등이다.

지역의 특화된 의료기술·의료상품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스포츠의료 관광모델이 선정돼 기대를 모았다.

주혜진 기자 hjoo@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소폭 개선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 응급실 과밀화, 응급환자 책임진료 등 주요지표들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복지

부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의 2015년 7월~2016년 6월 시설·장비·인력 법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실 과밀화 지수, 최종진료 제공률 등을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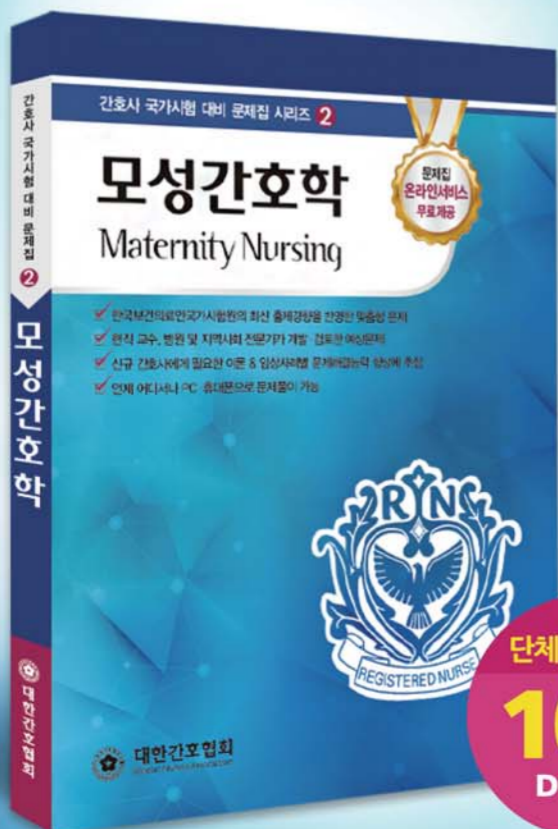
먼저 법정 필수영역인 시설·장

비·인력 충족률은 86.0%로 2015년 81.9% 대비 4.1%p 향상됐다. 응급의료기관이 법정기준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과밀화 평가지표에서는 '병상포화지수'가 50.1%로 2015년 54.5%에 비해 4.4%p 감소했다.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대비 0.3시간 소

## 2018년 대비 간호사 국가시험 마스터 시리즈 2

# 모성간호학 출판!



## 3월 모성간호학 출판을 시작으로 여름방학까지 전과목 출판!



### 대한간호협회 문제집의 특징

- 1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의 최신 출제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문제
- 2 현직 교수, 병원 및 지역사회 전문가가 개발·검토한 국가시험 예상문제
- 3 신규 간호사에게 필요한 이론 & 임상사례별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초점
- 4 언제 어디서나 문제풀이 가능 (PC·휴대폰)



### "문제집 온라인서비스 무료 제공"

문제풀이, 오답체크, 해설노트, 메모 기능 활용으로 반복 학습 가능



RNbook.or.kr 은 대한간호협회 출판사가 운영하는 간호학 전문 도서몰입니다.

문의 : 대한간호협회 출판사 02-2260-2553